



세계의 에이즈

“에이즈 환자들, 입원할 병원 없다”

부산 대전 등 지방의 에이즈(AIDS) 환자들이 입원할 병원이 없어 거리를 헤메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 등에 전문의가 배치된 격리 병동이 있으나 지방 병원은 전문의와 약, 격리 병상을 제대로 갖춘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에이즈환자를 입원시키면 다른 환자들이 병원을 기피할 것을 우려해 입원자체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는 병원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에이즈 환자들은 대부분 홀로 병마와 싸우다 전문의와 치료약조차 없는 도-시립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구-군보건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 141명이 있는 부산지역에는 부산시가 지난해 말 에이즈전문진료기관으로 위촉한 부산대병원과 인제대 백병원을 포함, 26개 종합병원 중 단 한곳도 에이즈 격리병상이 없고 해당 약품을 갖춘 곳도 부산대 병원뿐이다.

에이즈 감염자 김모(49)씨와 조모(56)씨의 경우 에이즈 합병증으로 병세가 악화됐으나 종합병원들의 입원거부로 부산시의료원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소 담당공무원들은 “현재 종합병원마다 격리병상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다”며 “에이즈예방법을 강화해 지역마다 주요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격리병상을 두도록 하고 지원도 늘려 효율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09/15)

에이즈 걸린 의사, 환자에게 감염사실 꼭 알릴 필요 없어 - 美 법대교수

조지타운 법대의 로렌스 O.고스틴 박사는 의사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미국의 현행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스틴 박사에 따르면 1999년 7월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고된 것 중, HIV에 감염된 보건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병을 옮겼다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B형 간염의 경우에도 1992년 단 한 건의 사례만 제외하고는 의사에서 환자에게로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었다.

고스틴 박사는 “환자에 대한 감염 위험이 매우 낮은데도 HIV 감염 보건인력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막대하다”며 이들은 고용 차별, 사생활 침해, 심지어는 생계 및 자아상마저 잃게 돼 이 같은 부담 때문에 많은 보건종사자들이 HIV 검사를 받거나 치료받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로이터인터넷, 10/19)

외국인체류자 에이즈관리 부실

국내에 잠기간 머물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할 외국인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립보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추방된 외국인 에이즈환자는 117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4명은 6달 이상 국내에서 생활했다.

여기에는 1997년 이후 단기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 에이즈 판정을 받은 외국인 16명도 포함되어있다. 이들은 장기 체류자와는 달리 입국 당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원에 가거나 우

연히 혈액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됐다. 또 유흥업소에서 공연 및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신청 때 에이즈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한겨레신문, 10/18)

日 '약해(藥害) 에이즈 사건'운동가로 유명한 가와타 중의원당선



▲항의집회에 참석한 가와타에쓰고씨와 아들 류헤이씨

22일 실시된 도쿄(東京) 21구(다치카와·립카지구)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인 무소속의 가와타 에쓰코(川田悦子·51)후보가 당선됐다.

가와타 후보는 이른바 '약해(藥害) 에이즈 사건' 운동가로 유명하다. 혈우병 치료약으로 쓰이는 혈액 제제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우려에 따라 구미에서 비가열 제제의 사용이 금지된 후에도 일본에서는 비가열제제를 그대로 사용, 잇달아 감염자를 낳았다.

보건 정책의 오류를 따지는 소송이 번지는 가운데 그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인 차남 류헤이(龍平·24)씨의 실명을 공개, 책임 규명과 보상을

을 요구하는 전국적 시민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이후 그는 도쿄지역 원고 측 부대표를 맡아 아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특히 95년 류헤이씨가 이끄는 '인간 사슬' 이후생성을 봉쇄,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후생성 장관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서면서 모자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요미우리신문, 10월 23일)

美 보건당국, 온라인 무허가 에이즈진단시약 유통에 골머리

미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에이즈 진단시약이 온라인상 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돼 미 보건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26일 인터넷을 통해 시판되는 에이즈 진단시약 가운데 하나인 아나살이 정확도 99%를 자랑한다는 회사측의 주장과 달리 약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FDA는 타액을 통해 HIV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이 시약이 정확한 진단을 하는지 여부를 현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미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익명성 보장을 무기로 한 에이즈 진단시약의 온라인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타임스,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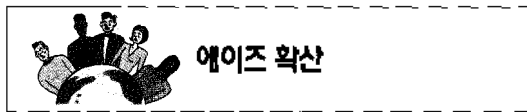
'샤론 스톤' 에이즈도우미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관능적인 이미지가 강한 배우 샤론 스톤(42)이 미 여성지 '글래머'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에 올랐다.

샤론 스톤은 '에이즈연구 전미재단(AMFAR)'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가, 수백만달러를 모금



하는 데 이바지한 점을 평가받았다. 그녀는 유명인들에게 모금을 설득했고, 유명한 자선파티에서 경매인으로 직접 나섰다. (조선일보, 10/25)



에이즈위기를 맞고 있는 동남아시아

태국에서 에이즈치료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런던의 Royal College of Physicians에서 열린 “에이즈: 우리 모두의 위기”라는 주제의 한 의학 화회에서 많은 연구가들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심각성 정도에 동남아시아도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라야 대학의 카마를지판교수는 말레이시아에서 매달 360-400명의 새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에이즈를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고가의 치료비는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에이즈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국에서는 1%이하가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

이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10-20%만이 가능하다. (BBC뉴스, 10/14)

에이즈 여고생 첫 공식확인

복지부는 국립보건원이 서울시내 모 고교 3년생인 여고생의 혈액에 대해 작년 8월 에이즈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고교생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복지부에 공식 보고된 것은 에이즈검사가 실시된 85년 이후 5번째이며, 여고생은 첫 번째 사례이다.

국립보건원은 작년 8월 고교 2년생이던 이 여학생이 현혈한 혈액에 대해 에이즈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여고생은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된 선배친구인 20대 남자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아직 환자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국립보건원은 밝혔다. (조선일보, 10/21)

태국 인터넷 이용 성관계 성행

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관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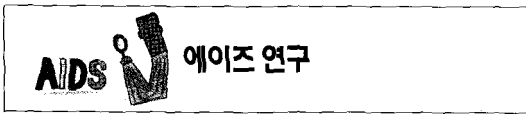
태국 어섬선 대학의 여학생인 몬티라 키앗시리솨땃이 인터넷 대화방 이용자들을 상대로 조사한데 따르면 태국의 컴퓨터 이용자들은 대화방을 음란한 대화를 하는데 이용하고 무작정 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00명중 108명이 인터넷 섹스를 경험했고 60명은 상대방과 약속해 만났으며 30명은 실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키앗시리솨땃은 “전통적으로 성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국에서 사이버 섹스가 성행하고 있는데 놀랐다”면서 컴퓨터 이용자들은 대부분 컴퓨터에서 임시 파트너를 찾아 나서고 실제 성관

계를 가지면 또 다른 상대를 찾아 나신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 대화방이 강간범들과 살인범들에 의해 이용되고 컴퓨터를 통한 문란한 성관계로 에이즈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0/23)



“에이즈·간염 등 자동진단 눈앞에”

“수십 혹은 수백 명의 혈액을 한꺼번에 진단하는 기법의 개발로 학교, 병원 등에서 혈액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주)다이아칩의 김수정 사장은 벤처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과학자 출신이다.

김사장은 “에이즈, 간염, 유행성출혈열 등 6가지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하는 진단시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기술 개발은 이미 끝났으며 내년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진단시약은 1명의 혈액으로 수십가지 질환을 동시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수십가지 질환에 대한 수십~수백명 혈액의 동시 진단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다. (경향신문, 10/18)

에이즈 백신 원숭이 실험효과 입증.. 미 하버드 의과대학 노물 랫빈 박사 연구진

원숭이를 대상으로 에이즈백신을 실험한 결과 에이즈바이러스감염을 막지는 못하지만 에이즈를 억제하는 강력한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노물 랫빈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20일자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보고에서 에이즈백신을 접종시킨 다음 에이즈바이러스를 주입한 붉은 털 원숭이에서 강력한 면역체계 세포군이 발달해 HIV를 공격하고 통제했으며 결국 원숭이는 발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랫빈박사는 이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체용으로 개발돼 초기 단계 실험이 실시되고 있는 비슷한 종류의 에이즈백신이 HIV를 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시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려면 수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랫빈박사는 “에이즈백신이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을 저지하는 못하나 바이러스 확산을 강력히 억제한다”면서 “백신은 면역체계 내의 CD8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10/20)

에이즈 “에이즈 치료백신 7년내 실용화 가능”

에이즈 바이러스(HIV) 발견 과학자들인 로버트 갈로와 튀크 몽타니에는 26일 첫 에이즈백신이 7년 이내에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첫 백신은 예방보다는 치료용이 될 것이며 바이러스를 잠복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백신은 다른 약제들과 함께 동시에 치료에 이용될 것이며 예방백신은 그후 비교적 단기간 안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5년 안에 에이즈퇴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중대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 10/28) A